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브라질 상파울로의 산호세 공동체에서
새벽 4시 13분(지역시간)에
마리아 로사리아 리베이로 수녀님께서서
90세 62년 수도생활을 마치고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은 '나의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쉬어라. 하느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오늘 전례말씀 시편 61편으로 이세상에서 조용히 하직하셨습니다.

수녀님은 1928년 12월 2일 브라질 자팅가에서 탄생하였고, 1929년 11월 23일 상파울로 핀하이 성령 성당에서 베네딕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 곤살로 본당에서 마드레 니베스 네그리와 마드레 로사리아 나자리를 만난 후 1947년 1월 12일 상파울로 빌라 마리아나에 첫 번째 브라질 성소자로 입회하였습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그리고 가정 사목 측면에서의 사목 사명을 사랑하였던 단순하고 관대한 수녀님이었습니다. 성모 신심이 깊었고 특히 매일 미사 참석을 좋아하였습니다.

1956년 카시아스 도 술 레오폴도에서 1월 5일 수련기를 시작하였고, 그 다음 해 1월 6일 로사리아라는 수도명으로 첫서원을 하였으며, 1962년 1월 6일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은 브라질인 초창기 그룹 10명에 속합니다. 카시아스 도술에서 초창기를 지낸 후 브라질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1967년 포르토 알레그레, 1968-1970년 카시아스 도술 상 레오폴도, 1971년 포르토 알레그레, 1973년 카시아스 도술 테르체이라 레파입니다. 1980년 레젠테 페이조와 1984년 브라질리아, 1986년 상파울로 나바퀘에라, 1988년 다시 브라질리아에 그리고 1992년 상파울로 자바퀘에라에 계셨습니다. 1996년-2005년에는 상파울로 자르딤, 2006년 상파울로 상 호세 집, 2015년 다시 상파울로 자르딤, 2019년 상파울로 상 호세 집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브라질 진출 70주년 기념식에서 로사리아 수녀님은 수도회 차원에서 그리고 바오로 가족 차원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증언으로 남겼습니다.

"저의 빠스뜨렐라의 삶으로서 성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6살 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46년 12월 어느 날, 제가 상파울로 자오 멘데스 광장에 있는 상 곤잘로 성당에 있을 때, 두 명의 수녀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름다운 성모님이

십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두 명의 수녀님들은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는데 포르투갈어를 하지 못했고 저 역시 이탈리아어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회로 가서 대화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선한목자예수수녀회의 마드레 마리아 니베스 네그리와 마드레 로사리아 나자리아심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수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길게 대화를 나눈 후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하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고, 성바오로딸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만난 후에 수도회에 입회하기로 약속하였다. 저는 1947년 1월 21일에 실현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은 린스 바스콘첼로스 3514가에 있는 마리아나 빌라에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서 유치원(라르 오 메니노 예수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오로 가족 차원에서 그리고 성바오로딸회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수도회에서 몇 년간을 산 후 수련기에 올라가고 싶었으나 허락되지 않아 매우 슬펐습니다. 1953년 프리모 마에스트로 야고보 알베리오네께서 방문하셨을 때 제 마음에 무엇이 움직이는지 물어 보셨고 저는 저와 제 양성 동료들이 수련기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신 다음 브라질의 그룹을 알도록 마드레 첼리나를 보내셨습니다. 마드레 첼리나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시자마자 우리의 수련장으로 마드레 아녜스 시모노띠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56년 1월에 10명이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957년 1월 6일 첫서원을 하였고, 브라질의 성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마드레 로사리아 나자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로사리아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 저에게는 수도회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의 수가 많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먼 여행을 하면서 두 명 혹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빠스뜨렐레들이 공동체를 많이 여고 교회가 선한목자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였습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의 삶과 성소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브라질 교회의 여정과 브라질과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선하고 거룩한 성소자들을 보내달라고 수녀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로사리아 수녀님의 투병생활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관구의 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고 선한 목자께 생명을 내어주신 로사리아 수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9일 리마에서
총원장 아민따 사르미엔토 뷔엔페스